‘평화와 연대’ 오월 광주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개막

17일까지 1500여 전문가 한자리
강연·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채
강기정 “평화·혁명 전 세계 확대”

강기정 광주시장이 15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에 참석했다.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대훈 (사)피스모모평화/교육연구소장,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신형석 (사)국민주권연구원장,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장,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민주주의학생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위원(왼쪽부터). 광주시 제공

세계적 인권전문가들이 모여 평화와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앞두고 광주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네스코(UNESCO), 광주시교육청 공동 주최로 열리는 올해 포럼에는 세계 각국 인권 전문가 등 약 1,500명이 참석한다.

포럼은 ‘평화와 연대: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 도시’를 주제로 17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시민들은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서고 맨손으로 총구를 움켜쥐며 가장 위헌적인 내란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12·3 비상계엄을 이겨낸 오늘의 민주주의는 45년 전 5·18의 유산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과 폭력으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어떤 전쟁과 폭력도 반대하며 평화와 혁명을 함께하는 전 세계 인권도시들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서승 우석대학교 석좌교수는 “광주는 권력에 저항한 도시로 인류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자유, 인권, 민주주의, 화해의 정신은 모두 5·18 정신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포럼 전체회의에서는 동물행동학자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가 ‘반평화적 상황과 인권 공동체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 발제했다.

이어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장, 제임스 히넌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장, 크리스토프 호이저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 파르하나 빈테 지가르 파리나 방글라데시 민주주의학생위원회 중앙위원회 조직위원 등이 ‘평화구축 연대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또 시민단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 △아동·청소년 △장애 △이주민 △여성 △지역 인권 △지구촌 반폭력 등 7개 의제가 논의된다.

특별회의에서는 각 도시들의 국가폭력 저항 사례를 공유하고,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APCAD) 회의와 인권 논문 발표도 이어진다.

16일 오후 1시 30분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필독도서로 선정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의 저자 차인표 작가의 북토크콘서트가 열리고 17일 오전 10시에는 ‘이영미의 평화밥상’의 저자 이영미 작가의 원데이 클래스 ‘모두를 위한 평화밥상’ 강연이 진행된다.

포럼 일정과 프로그램은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길용현 기자

남도미식박람회 입장권 사전구매하면 40% 할인

오늘부터 9월까지 총 세차례
목포 관광지·제휴업체 연계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입장권 사전 판매가 16일 시작된다. 사전예매를 통해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전남의 청정한 자연과 손맛이 어우러진 남도미식의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최초로 미식 테마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10월1일부터 26일간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입장권은 티켓링크, 네이버를 통해 사전예매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중에는 현장 매표소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현장 판매가는 1만원이다. 사전 예매자는 예매 시기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할인 단계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6월30일까지 1차 할인 기간에는 일반인의 경우 6,000원(40% 할인),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차 할인 기간에는 8,000원(20% 할인), 9월1일부터 30일까지 3차 할인 기간에는 9,000원(10% 할인)이다. 또 박람회 기간 현장에서도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20명 이상 단체 입장 시 일반인은 8,000원(20% 할인), 65세 이상, 장애인, 군인, 목포시민은 5,000원(50% 할인)에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이 있는 관람객은 근대역사문화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해상케이블카, 크루즈, 요트 등 목포지역 주요 유료 관광지와 카페, 식당 등 제휴업체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정근산 기자

전남도,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3년 연속 ‘최우수’

전국 평균보다 12.38%p↑
8대 분야 100개 사업 순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올해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전남도가 최우수(SA) 등급을 받아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2월7일부터 4월25일까지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공약 이행완료도, 2024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중 64%를 완료해 시·도 평균 이행완료율(51.62%)보다 12.3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추진 중인 전체 공약의 2024년 목표는 97% 이상을 달성했고 웹소통과 공약 일치도 항목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공약 관련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남도는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 첨단 전략산업 육성으로 청년일자리 대거 창출 등 8대 분야를 중심으로 20개 전략과제 100개 세부사업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현재까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규모 확대, 케이(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LNG 허브터미널 구축 등 64개 공약이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30조원 투자유치,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확대 등 36건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15일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가 공약의 완성도를 높였기에 가능했던 값진 결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 행정 역량을 집중해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